

들뜬에 황금 물결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10월은 본격적인 가을 축제의 계절. 산사와 지역의 특성을 담은 지역축제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제는 산사와 지역에도 축제의 문화상품화로 '문화=경제'라는 문화전쟁터에 뛰어든 것. 지역의 이미지와 결합된 페스티벌은 관광산업과 연계,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하게 된다. 주말 가족들과 함께 흥겨운 잔치 한마당으로 떠나보자. 축제 현장의 주위를 맴돌거나 보는 구경꾼에만 머물지 말고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축제기간동안진주남강에 떠있는 연꽃유등과 축석루 위의 풍등은 사바세계를 환하게 비추어 준다.

가족과 함께 지역축제 즐겨봐요

△부석사 화염축제=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북 영주 부석사에서 '제1회 부석사 화염축제'를 연다. 해동 화염종의 종조인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인 부석사와 그의 사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축제는 17일 도솔 김용욱씨의 '화염사상과 부석사'를 주제로 한 강연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어 18일에는 김영민, 김성녀, 도신스님, 김태근, 임동창, 타악연주자 김대환씨 등이 출연한 화염산사음악회가 진행된다. 경내에서는 부석사의 4계를 찍은 '화염사진전'도 펼쳐진다. (054)633-3464.

△경주 월령축제=월명 스님을 기리는 문화축제가 10월 19일까지 경주에서 열린다. 문화관광부와 경상북도, 기림사 등이 후원하는 월명문화축제에서는 10일 오후 2시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월명대사의 향가를 각각 문화와 불교, 국악부 문으로 나눠 그 가치를 재조명 해보는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본행사인 월명제는 11일 오후 7시 경주 첨성대 앞 문화의 거리에서 기림사 신도회의 육법공양, 영흥사 주지 희범스님의 종사 영반 의식 등으로 진행돼 탐돌이 촛불의식을 마지막으로 대담원의 막을 내린다. (054)743-7182.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10월 19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쓰임(用)'을 주제로 마련된다. 한국과 유럽,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42개 나라의 공예인들이 참가한 올 비엔날레는 공예의 쓰임을 재발견하기 위해 국제공모전과 초대작가전 외에 '생활공예명품전', '거리공예 프로젝트', '국제공예산업 교류전' 등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생활공예명품전'은 한 가족을 모델로 내세워 노년, 청년, 청년, 유소년의 삶의 방식라이프 스타일을 바탕으로 7개의 생활공간을 꾸민 뒤 수공예 명품을 배치해 공예품이 변화시키는 공간의 감성을 보여준다. (043)277-2503.

△진주 남강 유등(流燈)축제=10월 15일까지 진주성 앞 천수교에서 진주교 사이 1km의 남강과 둔치를 중심으로 환하게 불을 밝힌 수만 개의 등이 남강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색다른 황홀경에 빠져들게 한다. '세계등 전시'에서는 장승등, 축석무등을 비롯한 국내등 150개를 비롯, 20m 높이의 천단(天壇)등과 연꽃등, 용등 등 13개의 중국등, 태국의 왕실수레등,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대 인물상등, 싱가포르의 머리인상등, 일본의 금

붕어등 등 8개국 173개의 다양한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진주시 내 8개 고교생과 시민들이 직접 만든 수천 개의 장차등은 남강 둔치를 화려한 '등 터널'로 만들어 놓는다. (055)755-9111.

△부천 빛의 축제=국내 최초로 '빛'을 테마로 한 대규모 축제인 '제1회 부천 루미나리에(Luminarie)'. 10월 20까지 부천 상동호수공원 5만4000여명에서 펼쳐지는 이 축제는 3개의 대형 건축물과 40여개의 소형 건축물을 세우고 이를 34만개에 이르는 형형색색의 전구로 장식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빛, 평화를 향한 꿈(Luce, Sogno di Pace)'이라는 부제(副題)가 붙은 이번 축제는 크게 4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메인 테마로 높이 24m, 폭 40m, 길이 100m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평화의 기원', '복사꽃 세레나데' 호수를 따라 설치된 40여개의 조형물로 구성돼 색다른 분위기에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한 '빛의 호수', 20m 높이의 원형 구조물 중앙에서 360도로 뻗어 나가는 빛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는 '르네상스의 빛' 등이다. www.luminarie.co.kr.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항가 '도술가'의 월명스님

10월의 문화인물로 선정

문화관광부는 10월의 문화인물로 월명 스님을 선정했다. 정확한 생몰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스님은 신라 경덕왕때 항가인 <도술가>와 <제망매가> 등을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 월명 스님에 대한 조명은 곧 통일신라의 초석을 이룬 태종무열왕과 김유신 장군, 호국사찰인 사천왕사, 왕을 위해 세운 감은사 등으로 이어져 당대의 정치와 종교, 문화, 예술이 총망라돼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명 스님은 초월적인 종교인으로, 현실적인 화랑도로, 예술적인 항가작가로 대금의 달인인 음악인으로 살아왔다. 현재 그에 대한 기록은 지극히 빈약하지만, 그가 남긴 향가 두 편은 우리 국문학의 값어치로는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으며, 대금(琴)파악적 연주자의 조종(祖宗)으로서의 위치와 국가를 사랑하는 화랑으로서, 호국승려로서의 행적을 보면, 그가 21세기 한국인의 정신적 지주로 숭상되어야 할 인물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문화관광부는 선정이유를 밝힌다. 김주일 기자

'새로운 인생' 등 5개 프로 신설

불교방송, 13일부터 가을개편

불교방송은 가을개편을 맞아 불교적인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다루게 될 '새로운 인생', '불교와 생태와의 만남' 등 5개의 신설프로그램을 10월 13일부터 방송한다. 이번 개편으로 '라디오 열린마당'과 '불교문화산책', '한밤의 명상음악'은 폐지됐으며, '우리들의 찬불가', '법고의 준비' 등 12개 프로그램은 기존 방송시간이 확대, 축소되는 등 이동 편성됐다. 신설 프로그램 중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인생', 고행과 사해를 맞아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노년층의 사회참여를 모색해 한국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의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인생', 고행과 사해를 맞아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노년층의 사회참여를 모색해 한국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의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인생' 등이다. www.buddhanews.com

이 밖에도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맞춰 주말에 방편할 만한 사찰을 소개하는 '사찰순례'와 찬불가 뿐 아니라 클래식, 뉴에이지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불교적 색채의 곡을 소개하는 '명상음악'도 새롭게 기획됐다. 또 사시예불 시간에는 '반야심경 독송'도 방송될 예정이다. 편성개발부 김학주 부장은 "사회 문제, 시사적인 소재에서도 불교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는 프로그램들을 대폭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상희 기자



◇화강석으로 여백의미를 강조한 찻상 '휴(休)'.

작품마다 붙여진 제목이 재미있다. 양면에는 여백미를, 중앙에는 원형의 테두리에 꽃잎을 그린 '휴(休)'. 화강암 오석위에 우뚝 솟은 흰신을 새긴 '용푸라우'. 해인사의 전경을 조각한 '해인하늘'. 원을 감싸고 있는 네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한 골은 하늘을, 또다른 한골은 대지를 상징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등 불교적인 사상과 관련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꽃병인 '월화', 스텐드인 '문과 문' 등 생활용품도 전

시된다. 조경우 씨는 "찻물을 머금은 돌은 시간이 지나면 온도와 습도 조절은 물론 방인의 향기를 다스리는 방향제의 역할도 한다"며 "찻상상은 작업하기는 어렵지만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 생활공예에 용품으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02)733-5322. 김주일 기자



◇종교미술제에 출품된 강릉사씨의 '아미타구존도'.

17일 대한민국 종교미술제 한국화·조각·공예 등 99점

불교를 비롯한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중종교 등 7대 종교의 미술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국제 디자인 프라자에서 열리는 '제 7회 대한민국 종교미술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문인화, 서예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총 99점의 작품이 출품된다. 한국화와 서양화, 조각작품 등을 선보이는 불교에서는 강경구, 이호신, 김진수, 손연철, 강복사, 오연배, 이정원, 황주리 등 10여 작가가 참여한다. 또 특별전에는 동국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화경>을 판석에 새겨 놓은 '법화경석'과 조선 후기 목조조각으로 불자들의 발원문을 넣어두는 '소통(疏通)'이 전시된다. (02)708-2164.

불교정신 갖는 '돌 찻상展'

법련사 '해인하늘' 등 50점 (차) 마시기 좋은 계절, 법련사 불암미술관에서 10월 22일까지 '돌 찻상展'이 열린다. 전통조각가인 조경우씨가 돌로 만든 찻상 50여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당뇨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당치 발란스 (糖治) BALANCE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의 경유를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열당경역 식복합입니다.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1개월분 180,000원

당부하검사와 같은 개념으로 200그램의 탄수화물 섭취 후 2시간까지의 최고 혈당치가 160mg/dl 이상인 건강한 21명 중 90%인 19명에서 혈당 강하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평균 혈당 감소치는 29mg/dl이었다. 최고 혈당치 120 mg/dl 이하인 실험대상에서는 혈당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주)아미노젠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소리산 참선 캠프 범왕정사 서울군자법당 개원 기념 특별 수련회

와 선

(누워하는 참선)

호흡에 맞춰 108배, 선제 초도인간강법

- ◆ 절, 독경, 염불, 참선, 위빠사나 수행후에 20분만 투자하십시오. 외산 삼매의 상쾌함과 놀라움을 체험
- ◆ 피로, 몸살, 힘듦, 지칠, 졸림, 혼침을 극복하는 신비한 묘약을 얻게되고 특히 맑고 빛나는 눈빛을 언제나 유지하게 됩니다.
- ◆ 단전열이 열리며 숨이 깊어지고 수승화강과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는 신비로운 체험이 즉석에서 옵니다.
- ◆ 기혈순환이 극대화되어 사기, 병기, 객기, 타기는 빠져 나가며 에고의 업장은 소멸되고 머리는 항상 맑고 청명하며 기승은 시원하고 몸은 새털처럼 가벼워져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며 실제로 정수리에서 서늘한 기운이 나옵니다.

※ 대 상: 고시생, 수험생, 수행자, 사업가, 예술가, 컴퓨터 직종, 정신적 근로자, 직장인

※ 날 짜: 월, 화, 수, 금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 입회비: 1만원 ※ 열회비: 3만원

범왕정사 서울군자법당

전화 02)456-4994 · 0035 (팩스)
5, 7호선 군자전철역 4번출구앞 50M 이랑스 가구 4층

승복, 범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차를 이르는 지체로 변형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의 업체에서부터 차를 만드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에게 널리 보급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애용승복 직원일동 -

준추복: ●적삼, 조끼, 바지 W160,000 ●동방, 바지 W160,000 ●두루마기 W140,000 ●W60,000 ●모직(울 50%) ●광복 ●순면(무지있는 먹물)

과복: ●구김이 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A. W130,000 B. W160,000 ●마 W160,000 ●모직 W160,000

셔츠: ●리온드림 W20,000 ~ 35,000원 ●자이나젠 ●할부

해동승복: 대구고서역내 동구 동부영광동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정삼, 기사, 바지 및 기의의류는 맞춤주문 가능합니다. (인사말) 새 생복 40%할인판매

지정보살인력 임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지명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지명스님: 세력 맑은 공기가 맑아져 온 시간이요, 달마도를 위해 명상에 빠진 지명스님은 남이 보지 못한 빛을 들고 그리고 그린다. 옛날 여승을 바탕으로 집어지고 특박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저택에 여대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를 4바퀴를 돌며 불교를 전하고 그들의 지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하였다.

출가 후 출가 지정보살임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중진 하던 중 지정보살님의 화원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남기고 출현하시라 하였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만 여명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명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인양(00)파트를 지어 놓고 반안을 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반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반양을 시작했고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용인대에서 제계원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남다른 달마도를 그리며 지정보살님에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옵는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산사의 원력으로 아픈고 고되고 고된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남다른 달마도 서원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현사 지명스님 협장